원광대학교병원 소식,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 제생의세

제 340호 | 차세대 의료서비스의 중심, 원광대학교병원 | 2026년 10월 1일 (목)

## 연구·임상·기업지원 협력 거점 '의료혁신센터' 개소

### -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과의 협력 강화 -




지난 1일 오후 4시 의료혁신센터 사은홀에서 '의료혁신센터 개소식 ' 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의료혁신센터는 병원 내 분산된 연구·임상시험·기업지원·사업추진·응급의료정보관리 등의 기능을 한곳에 모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기술 개발과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에는 의생명연구원과 사업추진팀, 응급의료정보관리실이 이전했다. 의생명연구원의 연구지원팀과 임상시험센터, 개방형실험실 운영센터, K-바이오지원센터 등의 업무공간을 집적하고 임상시험 코디네이터(CRC) 업무공간과 공용회의실, 외부 협력기관 입주공간 등을 마련해 연구 수행환경과 협업 기반을 강화했다.

우리병원은 의료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지자체·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임상 전문성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 및 기술 실증을 지원해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원광대학교병원 장애인실업팀,

### - 창단 첫해 전국장애인체전 금 7개·총 11개 메달 쾌거 -




우리병원 장애인실업팀이 창단 첫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포함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1일부터 16일에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 선수 4명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석호진 선수는 4관왕, 유가은 선수는 2관왕에 올랐으며 박준영 선수와 최광수 선수도 각각 금·은·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성과는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병원과 익산시가 협력해 팀을 창단한 지 약 4개월 만에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일영 병원장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ESG 경영을 지속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 칭다오시시립병원과 '제3회 한·중 의학 심포지엄' 개최

### - 응급의료·정형외과·신경과·성형외과·간호 분야 최신 지견 공유 -





우리병원은 지난 9월 4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를 방문해 칭다오시시립병원과 '제3회 한·중 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양 기관의 의료기술 및 학술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칭다오시시립병원 개원 1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칭다오시시립병원 위텅보 총원장과 원광대학교병원 서일영 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의료진과 재활의과대학 학생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이어온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임상연수와 의료인력 양성, 병원 운영, 공동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심포지엄은 응급의료를 비롯해 정형외과, 신경과, 성형외과, 간호 분야의 전문 세션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 의료진은 각 분야의 주요 임상 경험과 최신 치료기술을 발표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응급의료 세션에서는 서일영 병원장이 '원광대학교병원 헥사곤 응급의료체계'를 소개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닥터헬기, 권역외상센터, 전문진료센터를 연계한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와 지역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

정형외과에서는 권석현 교수가 시멘트형 대퇴 스템 주위 골절을, 신경과에서는 이학승 교수가 혈관성 현훈 진단의 최신 지견을 발표했다. 성형외과에서는 이혜미 교수가 욕창 예방 및 치료의 최신 지침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간호 학술교류회에서는 미래 간호, 안전주사 수행, 환자안전문화 구축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간호 실무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경험을 나눴다.

양 기관은 병원 행정 분야 첫 교류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 직원 교육, 원가·물류·자산관리, AI 및 근태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의료진 중심의 교류를 행정 분야로 확대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양 기관이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임상 경험과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의료진 교류와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한·중 보건의료 발전과 양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서일영 병원장 ·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수상







지난 21일 우리병원은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부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으며,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도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에 기여한 공로로 개인 부문 표창을 받았다.

우리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수용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익산소방서와 응급의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구급대와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힘쓰고 있다.

# 신경과 이상학 교수, 치매극복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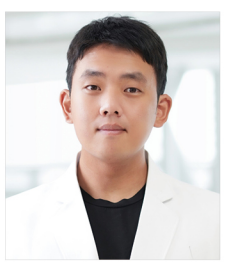
신경과 **이상학** 교수

신경과 이상학 교수가 치매 예방과 환자 치료·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 18일에 열린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여됐다.

이상학 교수는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중요하다"며 "치매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신건강의학과 윤성훈 교수 연구팀,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정신건강의학과 **윤성훈** 교수

정신건강의학과 윤성훈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간기능 혈액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AST/ALT 비율'이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와 뇌 위축,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행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및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알츠하이머협회 국제학술지 「Alzheimer's & Dementia: Diagnosis, Assessment & Disease Monitoring」에 게재됐다.

윤성훈 교수는 "APOE ε4 보유자에서 AST/ALT 비율이 높은 경우 인지기능 저하와 뇌 위축, 알츠하이머병 임상 진행 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환자 집단에서 결과를 검증하고 치매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영상의학과 임수현 전공의, KCR 2026 Silver Prize 수상



영상의학과 **임수현** 전공의



영상의학과 **이영환** 교수



영상의학과 **김유리** 교수

우리병원 영상의학과 임수현 전공의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82차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에서 Best Scientific Awards Silver Prize를 수상했다.

임수현 전공의는 'Gas Where It Shouldn't Be: A Space-Based Approach to Pneumoperitoneum and Pneumoretroperitoneum'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영상의학과 김유리·이영환 교수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복강과 후복막강의 비정상 가스를 해부학적 공간에 따라 분석해 원인 질환을 감별하는 영상의학적 접근법을 제시했으며, 응급 복부 질환의 원인과 병변 위치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 정신건강의학과 최다현 ·김대은 전공의, 학술대회서 잇따라 우수포스터상 수상



정신건강의학과 **최다현** 전공의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은** 전공의

정신건강의학과 최다현·김대은 전공의가 윤성훈 교수의 지도 아래 수행한 연구로 각각 대한정신약물학회와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최다현 전공의는 지난 11일 '2026 대한정신약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양극성장애 위험 청소년의 전기생리학적 특성: 사건관련전위 연구'를, 김대은 전공의는 지난 18일 열린 '2026 대한우울조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APOE ε4 보유자에서 혈중 비HDL 콜레스테롤과 타우 병리, 해마 위축 및 인지기능 저하의 연관성: 미국 ADNI와 한국 코호트를 통한 검증 연구'를 발표해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두 전공의의 담당교수인 윤성훈 교수는 우울장애·기분장애·불안장애·치매·노인정신질환·수면장애 등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 남원 국립의전원 성공적 설립·운영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유관기관과 손잡다




지난 28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남원의료원 등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이끌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관들은 향후 국립의전원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예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국립의전원 설립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우리병원의 의료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원광대학교병원,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지정




우리병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2일 '보건의료데이터표준 선도병원 합동 착수보고회'를 열고 우리병원을 비롯한 신규 지정 병원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마련한 보건의료데이터표준을 실제 진료 현장에 적용해 의료기관 간 정보 연계·활용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우리병원을 포함해 선도병원이 기존 1개 기관에서 4개 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사업 결과는 국가표준 개선과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원광대학교병원 닥터헬기, 군산 어청도 응급환자 2명 잇달아 긴급 이송

우리병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가 지난 21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 발생한 80대와 60대 여성 응급환자 2명을 잇달아 긴급 이송하며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

이날 오전 다량의 출혈 증세를 보인 80대 여성과 낮에는 혈압 상승과 심한 어지럼증, 기력 저하로 거동이 어려운 60대 여성을 각각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환자는 군산해경과 우리병원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안전하게 이송됐으며, 60대 환자는 진료 후 퇴원했고 80대 환자는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우리병원은 닥터헬기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를 기반으로 전북과 충남 서천·보령 등 인접 지역의 중증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서·산간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 '2026 원광 심장 심포지엄(WCC)' 성료




우리병원은 지난 5일 '2026년 원광 심장 심포지엄(WCC)'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순환기질환의 최신 의학지식을 공유하고 지역 의료진의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대학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의 순환기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최신 지견과 심혈관의학 신기술 등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임상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원불교 원로교무 대상 특별 건강강좌 개최



우리병원 권역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16일 동산수도원 법당에서 원불교 원로교무 및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특별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예방관리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혈압 측정과 심방세동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증상과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신경과 이상학 교수가 '뇌졸중과 치매 예방관리'를 주제로 위험요인과 조기 증상, 예방·관리 방법을 강의했다.

# 전국 공공의료기관 진료부 고위관리자 현장 방문 프로그램 실시




지난 11일 전국 공공의료기관 진료부 최고관리자를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사업과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공유하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운영한 '2026년 제3차 공공보건의료 진료부 고위관리자 포럼'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진료부장 등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병원 주요 사업을 소개받고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전용 헬기장을 둘러보며 중증응급·외상환자 진료와 닥터헬기 이송체계를 살펴봤다.

'2026년 공공보건의료 고위관리자 포럼'은 간호부·행정부·의사 직군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진행됐으며, 이번 포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 신규 전문의 초빙

## 더욱 강화된 전문 진료 역량! 더욱 넓어진 의료서비스!

새롭게 합류한 전문의와 함께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2026년 원광대학교병원 신규직원을 소개합니다



• **이름** 박지수

• **부서** 재무팀

• **입사 후 포부 및 소감** 원광대학교병원의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신뢰받는 의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재무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선배님과 동료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름** 최경인

• **부서** 비서실

• **입사 후 포부 및 소감** 원광대학교병원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 접하는 병원 업무인 만큼 겸손한 자세로 배우며, 맡은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병원 전체를 넓게 바라보며,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보탬이 되는 직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이름** 오지윤

• **부서** 물류자산팀

• **입사 후 포부 및 소감** 원광대학교병원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를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과 내부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름** 전성호

• **부서** 교육수련팀

• **입사 후 포부 및 소감**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설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병원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198회 WKUH 친절직원



71병동과 **김민주** 간호사

안녕하세요. 71병동 간호사 김민주입니다.
친절직원이라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분들께서 직접 남겨주신 칭찬과 응원의 글을 통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건넨 작은 관심과 친절이 환자 및 보호자분들께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의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환자분들을 돌보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198회 WKUH 친절부서




**52병동**

친절 부서상은 52병동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환자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번 더 설명하고 살피려는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노력을 알아주셨다는 점이 가장 기쁩니다.
이번 수상이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모든 부서원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하며 신뢰받는 간호를 실천하겠습니다.

## 이 달 의 간 호 사



52병동 **국윤정** 간호사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아낌없는 도움과 배려를 보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분들께 따뜻하고 신뢰받는 간호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천의 글 : 52병동 **이강순** 수간호사

상기자는 단아한 성품으로 긍정적이며 선후배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병원주관 행사 및 병동의 계획된 업무에 적극 참여하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간호를 실천하며 모범이 되어 추천합니다.

## 칭 찬 합 니 다



응급구조사 **이아진** 선생님

제가 칭찬하고 싶은 선생님은 응급구조사 이아진 선생님입니다.
잦고 바쁜 업무로 병동을 오가시면서 힘드실법도 한데,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묵묵히 맡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밝은 표정이 인상 깊었고, 부탁을 드릴 때마다 건네주시는 짧은 한마디에서도 따뜻함과 친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늘 성실하게 애써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천인: 61병동 **김은영** 간호사

**직 / 원 / 동 / 정**

## 반갑습니다

2026년 9월 신규임용 인사발령 기준

| 의사 | | 간호사 | | 진료지원 · 행정 | |
|---|---|---|---|---|---|
| • 이식혈관외과 | 양한솔 | • 55병동 | 최은서 | • 재무팀 | 박지수 |
| • 중환자의학과 | 이미경 | • 61병동 | 이하민 | • 비서실 | 최경인 |
| • 소아청소년과 | 방호일 | • 62병동 | 권희정 | • 물류자산팀 | 오지윤 |
| • 간담췌간이식외과 | 이병관 | • 63병동 | 강준영 | • 교육수련팀 | 전성호 |
| • 신경외과 | 박은성 | • 제3집중치료실 | 박종효 | • 영양팀 | 도정우 이소연 임문수 |
| • 신장내과 | 최지호 | • 신생아집중치료실 | 박서연 방소연 | • 영상의학과 | 심규성 |
| • 응급의학과 | 심태형 | • 권역응급의료센터 | 황도현 | • 임상시험센터 | 유효진 |
| • 이비인후과 | 구형본 | • 권역응급집중치료실 | 박형준 | • 진단검사의학과 | 김지민 |
| • 재활의학과 | 최성복 | • 권역외상집중치료실 | 김시온 | • 방사선종양학과 | 조민재 |
| • 정신건강의학과 | 이수우 | | | | |
| • 정형외과 | 백승정 조양훈 | | | | |
| • 피부과 | 임지예 | | | | |
| • 현대자동차(주)의원 | 김종건 | | | | |

#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정신건강의학과 **양찬모** 교수




### 1. 청소년 도박,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청소년 도박 중독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닌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미국정신의학회(DSM-5)는 도박장애를 알코올·약물 중독과 같은 중독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에도 정식 질병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뇌의 보상회로와 도파민 시스템에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등 물질중독과 유사한 뇌 변화를 보입니다.

또한 2024년 The Lancet Public Health 도박위원회 보고서는 도박을 담배·술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상업적 결정요인'으로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단순한 일탈로 보기보다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건강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 2. 청소년 도박, 얼마나 어린 나이에 시작될까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의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분석한 2025년 전국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3,481명)에서 평생 도박 경험률은 4.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2.3%였지만 6학년에는 4.7%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첫 도박 경험 연령의 중앙값은 만 10세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도박 경험 후 최근 6개월에도 계속 도박한 비율이 초등학생 24.8%로 중학생(20.1%), 고등학생(15.8%)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도박은 더 이상 중·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릴수록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왜 청소년은 온라인 도박에 더 취약할까요?

청소년이 도박에 취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뇌 발달의 불균형입니다.**

쾌감과 보상에 반응하는 변연계는 사춘기에 먼저 성숙하는 반면, 충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은 20대 중반까지 발달이 이어집니다. 즉, 브레이크가 완성되기 전에 액셀부터 밟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쉬운 접근성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온라인 도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청소년의 38.3%가 타인의 계정을 빌려 사용했고, 23.4%는 대리 베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적 취약성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베팅을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사이버 머니 오인'과 또래의 도박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도박 시작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 4. 어떤 때 치료가 필요할까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는 '조절 실패'와 '일상생활의 변화'입니다.

- 도박을 끊으려고 했지만 여러 번 실패한다.
-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 도박하는 '추격 베팅'을 한다.
- 도박을 하지 않으면 초조하거나 짜증이 난다.
- 점점 더 큰 금액을 걸어야 만족감을 느낀다.
- 도박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빌린다.
- 성적이 떨어지고 수면·식사 등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

이러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행동으로 넘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5.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의 주요 치료법은 '인지행동치료(CBT)'입니다.

'이번에는 딸 것 같다', '잃은 돈은 다시 따면 된다'와 같은 도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도박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습니다.

치료 동기가 부족한 청소년에게는 동기강화상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청소년 치료에서는 가족의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교육과 가족 개입을 통해 치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치료는 보통 주 1회, 8~12회기(약 2~3개월)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재발 방지와 생활 회복까지 고려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단치거나 추궁하기보다는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이 함께 치료 과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치료를 끝까지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6.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위험 청소년일수록 도박을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 종류의 온라인 도박을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나는 안 할 자신이 있다'는 절제에 대한 자신감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신호는 친구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행동입니다. 친구에게 도박을 권유하고 있다면 이미 도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상담이나 치료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금전 피해 ▲돈을 훔치는 행동 ▲대리 베팅이나 계정 대여 ▲우울·불안 증상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광대학교병원tv에서
확인하세요

영상 바로가기

이 달 의 법 문

# 탓탓탓 혹은 덕분에



**승산 송우진** 교무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 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10월이 돌아왔습니다. 춘하추동의 이치를 따라 어김없이 가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가을은 참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익산 만경평야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절로 푸근해집니다. 익산 총부 뒤편으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넓은 논들이 펼쳐집니다. 그 길을 따라 산책을 하다 보면 논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노랗게 익은 벼만 보였는데, 가까이에서 일 하는 농부들을 만나게 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 벼가 그냥 자란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땀과 정성, 수많은 날과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구나. 그러고 보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하나에도 동포은이 어려 있습니다.

이달의 법문을 생각하다보니 두 곡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임창정의 「탓탓탓」이라는 곡입니다. 신나는 트로트 곡인데, 세상 탓, 운명 탓만 하며 살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세상살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어려움을 몇 마디 말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늘 무엇인가를 탓하며 사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곡은 장성 황룡강 축제에서 우연히 들었던 구재영의 「덕분에」라는 곡입니다. 이 곡 역시 신나는 트로트 곡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도 과하면 때론 가식처럼 느껴질 수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늘 고맙다고 말하고, 덕분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감사생활을 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기운을 바꾸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한 원로교무님을 병문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며 "교당 교무님이 이렇게 와주시네"하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수술 결과를 여쭈니, 교무님께서는 "동포은이 한량없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여러 직원들이 얼마나 애써 주는지 새삼 감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술이 힘들지 않으셨던 것은 아니셨을 텐데 교무님은 아픔보다 감사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회진을 온 의사도 "교무님께서 늘 감사한 생각을 하시니 수술 경과도 참 좋은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몸도 힘드실 텐데 활짝 웃으시며 동포은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서 감사의 기운이 깊게 전해져 왔습니다.

감사는 온 우주의 기운을 받는 일입니다. 풍요로운 10월, 우리에게 온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탓탓탓' 원망생활보다 '덕분에' 감사생활 하셔서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법회안내

| | |
|---|---|
| 1부 법회 | 매주 수요일 12:40 |
| 2부 법회 | 매주 수요일 15:40 |
| 영양팀 법회 | 매월 셋째주 수요일 09:40 (장소 : 교직원 식당) |

☎ 063) 859-0012

마음으로 이어가는 생명의 이야기

# '원광대학교병원 발전위원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원광대학교병원의 새로운 도약이 됩니다.*
*의료의 미래, 소중한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열어갑니다."*

**발전기금 사용처**

- 의료, 교육 환경 개선
- 의료장비, 임상실험 기자재 구입 등
- 학술연구, 장학기금
- 불우환자 지원
- 기타 병원 및 의과대학의 발전

**원광대학교병원 후원계좌**

농협 351-1136-1699-73
새마을금고 9002-1935-3455-6

**기부 문의**

총무팀 전화) 063.859.2064 팩스) 063.858.3922

**기부자 예우**

| 예우내용 \ 후원금액 | | 3백만 원 이상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
| 디지털 명예의 전당 등재 | | ● | ● | ● | ● | ● | ● | ● |
| 명예의 전당 동판 명패제작 | | ● | ● | ● | ● | ● | ● | ● |
| 진료비감면율 | 진찰료 | | | | ● 50% | ● | ● | ● |
| | 본인부담금 | | | | | | ● 50% | ● |
| 종합건강검진(기부금 10% 이내) | | | ● | ● | ● | ● | ● | ● |
| 무료주차(1대) | | | | ● | ● | ● | ● | ● |

원광대학교병원
WONKWANG UNIVERSITY HOSPITA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차 환자경험평가

## 환자가 직접 뽑은 병원 전북권 1등급 유일

# 전북1위획득



전북권병원 13개 중
**1위**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16위**

전국병원 376개 중
**25위**

**평가 항목**

☑ 의사·간호사와의 의사소통 ☑ 투약 및 치료 과정 ☑ 환자 권리 보장 ☑ 병원 환경 ☑ 전반적인 입원 경험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724-중-217344호

## 응급부터 중증까지, 24시간 함께합니다.

# 원광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2024.1.1.~2026.12.31.),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2026.11.1.~2029.10.31.),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2019.10.31.)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2022.1.26.), 응급의료전용헬기, 다인용 고압산소치료실

| | | | | |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1577-3773 | 전북금연지원센터 | 063)859-2400 | 지역모자의료센터 | 063)859-1506 |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063)859-1991 |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 063)859-1375 | 종합건강증진센터 | 063)859-1122 |
| 권역외상센터 | 063)859-1188 | 전북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63)859-0051 | 암센터 | 063)859-1180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 1577-3773 | 전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 063)835-6700 | 국제진료협력센터 | 063)859-0123 |
| 고압산소치료실 | 063)859-1069 | 익산권지역책임의료기관 | 063)859-0066 | 진료협력센터 | 063)859-2585 |

**대표전화/전화예약**
**1577-3773**
응급의료전용헬기 063)837-8334~6
(항공의료팀)

**발행인** 서일영 | **기획·편집** 대외협력실 이학승, 오남식, 문민선, 성혜림 | T.063-859-2025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895** | www.wkuh.org